불자 세상보기

日 산케이 신문 왜곡 보도 한일관계 악화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민족에게 있어 8월은 광복과 해방을 기리는 찬란한 축복의 달이다. 그런데 "보도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그러하듯 참으로 민망스럽고, 황당한 기사가 우리의 8월을 어지럽히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 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된 기사이다. 이 기사를 두고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항의하고 있고 일본 측은 '보도 자유의 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나저나 그동안 불편하게 꼬여 왔던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새삼 '믿음'이라는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생뚱맞게 여기에 무슨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가? 인간의 삶은 다양한 믿음의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흔히 사회적 존재라 칭하고 있다. 바로 사회적 존재는 믿음의 구조와 기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창간이래, 일본민족주의라는 폐쇄적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그 논조를 계속 펴오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믿음의 체계이다. 산케이는 이러한 믿음의 틀 위에서 일본군에 의해 30만이 죽임을 당한 중국의 난징대학살 사건을 날조된 사건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위안부"라고 비꼬는 기사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일부 개신교의 광신자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귀중한 불교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것이 여러 심리실험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은 믿음의 왜곡과 믿음의 폭력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반면교사?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 상황도 '믿음의 갈등과 폐쇄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믿는 대로 보이는 '믿음의 마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폐쇄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왜곡된 믿음의 폭력성 표출

한국사회도 반면교사 삼아야

믿음은 종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에서도 믿음은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로 칭해지지만 불교 신자가 되는 첫 걸음은 믿음이다. 붓다를 믿지 않고,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을 믿지 않고 어찌 불교가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불교는 믿음의 마술로부터 벗어난 종교이다. 불교의 믿음은 숭배나 찬양에 그치지 않고 수행 정진하여 근원적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즉 '열린 주체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 의심하는 '간화선'이 불교 수행의 큰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화쟁의 길'로 가는 길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광장을 만들 때 화쟁의 길이 가능한 것이리라.

아쉬운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을 너무 존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7시간의 동선을 밝히는 것도 무례로 생각한 것인지?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계 시민으로부터 열렬히 환호 받는 것은 '낮은 데로 임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 같은 것은 결코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니라. 하심(下心)이라 낮은 데로 임하소서.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비구니 호계위원 무산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입법 회기였던 제199차 임시회가 8월 12일 열렸다.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이기도 했다. 회의 결과는 참담했다. 종헌 개정안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진입을 명시한 종헌 개정은 큰 표차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실망크지만 종헌개정 끝까지 노력할 것"

일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입장에서 일단 종도들을 뵐 면목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관심도도 높았고 내심 기대도 했는데 끝내 이렇게 돼 버렸다. 공청회도 열고 여론도 수렴하며 4년 동안 피땀흘려 마련한 법안들이 몇 사람의 반대로 저지됐다.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노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심경이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비구니 스님들을 비구니가 갈마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중 살림을 살다보면 일부 비구니 스님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종회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호계위원 참여를 주장했던 것이다. 비구 스님들의 명예나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비구니 스님 2명을 호계위원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갈마 범위를 비구 스님들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됐다. 함께 종단을 평등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였는데 문호를 열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느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종헌 개정을 위해 원로 스님들과 다른 비구 스님들을 찾아뵈었을 때는 호의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62명 중 21명이 반대를 했다는 개표 결과는 충격이었다. 반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실망이 크다.

종단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 많은 대립과 소모전을 일으킬 뿐이다.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진입이 종단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회적으로는 명실공히 양성평등시대지만 아직 한국 불교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16대 종회에서 다시한번 차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대다수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통법을 연구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다.

"종단 내 남녀평등 실현이 급선무"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8월 12일 조계종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비구니승가의 법규위원·호계위원 참여와 관련된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교계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가 비롯된 데에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는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종교적 보수성을 감안해 계율을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입장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적인 종교계에서 그것도 계율로 이 부분을 접근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고 수행자로 받아들인 정신으로 '참종권 확대'가 아닌 '평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스님들의 노동을 금지한 계율을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청규라는 방편으로 해결한 것과 같은 혜안이 요구된다.

불교계는 2500년 전 만들어진 계율을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법의 정신에 입각해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종헌개정안 부결문제도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차별 문제를 열린 각도에서 현대사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승단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숱하게 볼 수 있다.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스님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유마경〉에서는 남성, 여성의 몸은 한낱 모습일 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계율 문제는 진보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고 수행자로 받아들인 것은 불교가 최초다.

이처럼 앞서가는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종단 내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社說

마무리 부족했던 15대 중앙종회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가 8월 12일 열린 제199차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종회였던 만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오는 10월 16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있지만 입법 회기를 모두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15대 중앙종회는 열리지 않는다.

제15대 중앙종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산중총회법 등 종단 1차 쇄신입법들을 대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승가의 청정성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시된 총무원의 쇄신 법안을 중앙종회가 입법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다. 또한 활발해진 종책질의도 이전 중앙종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종회의원 출석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다양한 입법 성과에도 승려법, 교구법,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방법 등 종단 선거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옥의 티'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위한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의 진입이 무산된 것은 비구 스님 중심의 종단 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종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막상 표결로 들어가니 입장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분명 제15대 중앙종회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그 마무리에서 사부대중은 종단 구태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부경대 불교 동문회의 후배 사랑

취업난 등으로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고사 위기에 있다. 회원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다. 바로 부산 부경대 불교동아리 같은 곳이 꿋꿋이 건재하고 있어서다. 성공 비결은 평범했다. 선배 동문들이 앞장서 후배들을 이끌어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시켰다.

부경대 불교학생회에는 현재 약 5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얼핏 들으면 큰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 동아리 대비 결코 뒤지지 않는 숫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현재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을 맡는 등 부산지역 불교학생회의 구심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부경대는 국립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두 대학이 1996년 통합돼 탄생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도 대연·용당 등 두 곳으로 나눠져 있다. 비록 캠퍼스는 따로 있지만 부경대 불교학생회는 양쪽 캠퍼스별 불교학생회장을 각각 두고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선배들의 지원이 얼마나 지극하길래 타대학은 힘들다는 불교동아리가 되살아나는 것일까. 부경대 불교동문회에서는 동문회 관련 각종 모임과 행사에 재학생들을 적극 동참 시킨다. 그래서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여기서 맺어진 끈끈한 관계는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이러다보니 선배들의 후배 사랑은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진다.

매년 200~3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지원, 학생회 MT지원,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 심지어 올 여름 제주도서 열린 대불련 종동문회 워크샵에는 선배들이 십시일반 비행기표 값을 지원해 재학생 14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원래 동문조직도 양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개였지만 2000년 봉축을 계기로 하나로 합 합쳤다. 역시 한마음으로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한다. 통합을 계기로 후배들을 이끌자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